

한인타운 음주운전 방지 프로젝트 조사 결과 보고 4/10/2006

미주 한인들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

1. 문화의 차이: 한인들은 다른 아시아 태평양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음주후 운전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용납한다.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에 따른 조사보고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계 사람(AAPI) 들은...

- 13% 이상이 지난 12 개월간 음주 후 2 시간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19-29 세사이)
- 15% 이상이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넘어 운전했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각 출신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 36% 만이 음주운전이 문제라고 인정하였다. 조사된 인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 87%만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말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모든 인종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미주 한인과 음주운전

- 20 대 및 중년의 한인남성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 20 대이상의 한인들이 선택되었다.
- 한인들의 특이한 음주문화가 문제의 큰 부분이 된다.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이해심, 또는 한인들의 음주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불법 라이선스 적발 사건들이 음주운전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자신들을 술이 "가장 센" 민족, 또는 "하드코어 드러inker" 로 분류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 많은 신문기사에서 한인 음주운전 사건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한인 대상 신문에서 발췌):
 - "한국 음주문화, 청소년 음주운전에 큰 영향"
 - "한인 음주문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 "인생을 바꾸는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치달게 하는 사회적인 요소
 - 한국의 교통수단과 미국의 교통수단의 차이

	한국	미국
<i>음주문화</i>	- 음주에 관한 사회적 시선 비교적 우호적인 성향	-미주에서 거주하는 한인들 (특히 한인 1 세) 은 한국 음주문화를 미국에 그대로 가져온다. (예) 로스엔젤레스의 코리아타운
<i>술과의 접촉</i>	-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 식당이 모여있는 곳이 많다.	- 로스엔젤레스의 코리아타운등에서는 이웃 도시들보다도 더 손쉽게 술을 구입하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i>교통수단</i>	- 택시나 버스등의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며, 집과 술집, 식당과의 거리가 미국에 비해 가깝다.	- 택시나 버스등의 대중교통수단은 비싸거나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한국에 비해 운전 거리가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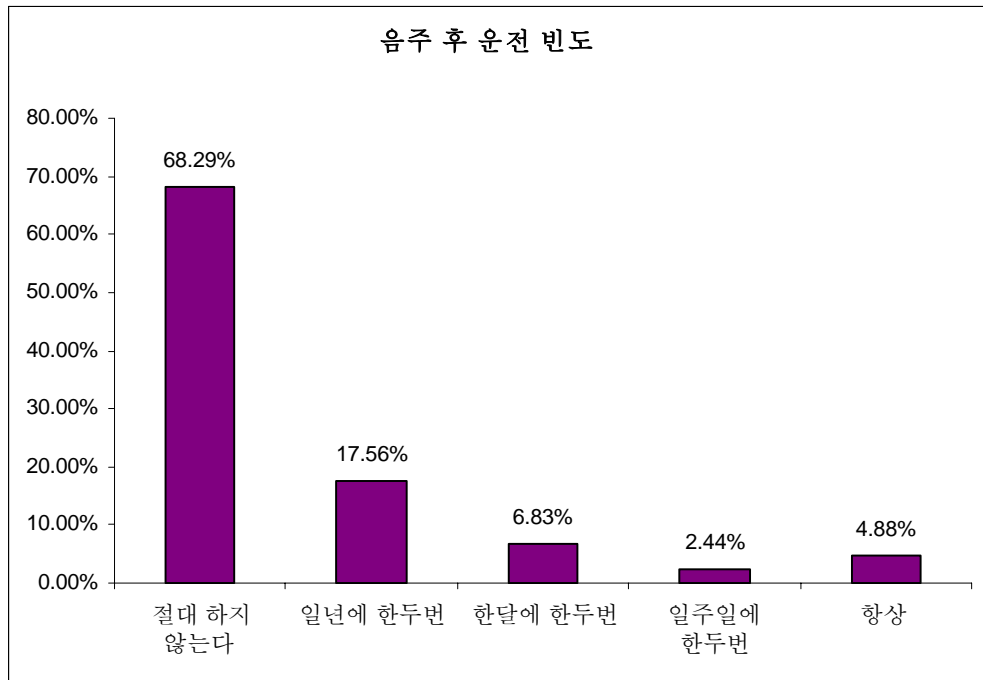
결과	→ 집에 안전하게 도착,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의 증가, 음주와 관련된 범죄의 증가, 한인의 이미지 손상, 미국사회 위협
----	-------------------------------	---

* 풀어야 할 숙제: 어느 곳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대중교통수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문화적 배경에 따른 개념의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

→ 한인사회 교육을 통해 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주 한인들의 음주운전 행위 개선의 첫걸음이다.

2. 대부분의 한인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래도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작년 2005년 9월에 실시된 한인타운 음주운전방지 프로젝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32%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 같은 설문조사에 응한 4.88%의 사람들이 음주 후 항상 운전을 한다고 밝혀 한인타운과 한인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 13.29%의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음.
- 설문조사에 응한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는 한인들의 대체적인 특성

- 20-50대의 한인남성
- 한국어권 (영어보다 한국어를 주로 쓰는 사람)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의 웹사이트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인들의 음주운전은 한달에 20 건가량, 일주일에 2 번이상으로 발생했다.

3.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한인타운에는 다른 주위의 어떤 타운보다도 주류판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 한인청소년회관이 주최한 조사에 의하면, 한인타운내의 주류판매업소 밀집도는 이웃 베버리힐스의 주류판매업소 밀집도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한인타운에는 345 개의 주류판매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ZIP CODE: 9005, 90006, 90010, 90020) 그중 234 개의 주류판매업소의 소유주가 한인이다. (가주 Alcohol Beverage Control). 그중 213 개의 주류판매업소가 작년 5 년간 새로 생기고, 또 그중 64 개의 업소는 지난 일년간 새로 생긴 것으로 볼 때, 지난 몇년간 한인타운내의 주류판매업소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